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박 애 선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황 미 구[†]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상담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한국 상담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해보고,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인 조망과 실증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상담의 정체성은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정체성, 상담의 학문적인 정체성, 한국 상담관련 조직과 정책에서 상담의 정체성 확립, 한국적인 상담모형의 정착을 통해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상담은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다른 학문간의 교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상담자들은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을 경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한국 상담의 정체성, 상담의 발전 과제

[†] 교신저자 : 황미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학길 39
Tel : 033-248-1728, E-mail : hmigu@hallym.ac.kr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동과 다양한 가치의 공존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치의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혼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의 풍요함을 향유하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고독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의 사회적 환경과는 달리, 선택의 범위는 넓어지고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선택은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양해졌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은 개인에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직업·사회적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따라서 개인은 현명한 선택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상담영역에서도 좀 더 전문화·세분화된 영역의 상담자들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적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상담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아직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낙인(stigma)문제와 상담을 수치심과 오점의 원인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상담에 관한 정보 부족과 잘못된 정보로부터 형성된 상담에 대한 오해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 봉사 수준의 비전문적인 상담자 문제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상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박성수, 박재황, 황순길, 오익수, 1993)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상담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갖는데 75년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고 한다(Wheeler, 1980). 이에 비하면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담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확립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들(김계현, 1994; 김혜숙, 1996; 박성수, 1993, 1997; 이형득, 1994; 황응연, 1994)을 통해 국내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근래 주류 상담이론조차도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세계관에 맥락적(contextual)인 과제들을 반영(Cheatham, Ivey, Ivey, Pederson, Rigazio-DiGilio, Simek-Morgan, & Sue, 1997)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시대적인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상담정체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 상담의 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상담자의 전문성 증진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에 따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통합적인 한국상담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의 한국 상담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과의 여러 학문 간의 연계 속에 한국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상담역사와 정체성 확립과정

상담은 인간들이 군집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존재했으며, 이것은 많은 문화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이윤상, 1992). 한국에서 상담이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50년대 초반부터이다. 우리나라 상담의 정체성이 성립하기 위한 발전적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상담활동은 해방과 더불어 구미의 민주적인 교육사상이 도입되고 1950년대 초반인 미국교육사절단의 활동을 계기로 중·고등학교의 교도교사 강습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상담은 학교 교육에서 상담이론을 소개하면서 도입되었고, 이것이 교육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상담의 역사를 미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담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다(김남순, 2001). 학생의 문제를 훈화, 훈육, 그리고 처벌로 해결하던 일제체대를 거치면서 획일화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교육사절단의 권고와 중앙교육연구소의 활동이 생활지도와 상담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김남순, 2001). 이와 같은 영향에 힘입어 최초의 조직적인 생활지도활동은 1957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생활지도교사강습회를 통해서 ‘가이던스’라는 생소한 용어가 사용되고 초보적인 상담활동이 시작된 것이다(이성진, 1973). 그러나 심리검사의 커다란 영향력으로 각종 심리검사가 계속 표준화되면서 심리검사가 마치 상담이나 생활지도와 동일시(김남순, 2001)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학에서의 본격적인 상담활동은 1962년 서울대학교에 아시아 재단의 협조 하에 학생지

도연구소가 발족됨으로써 상담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준 것은 1963년 중·고 카운슬러를 중심으로 한 한국카운슬러협회가 창설된 것이다. (한국카운슬러협회, 1985). 한국카운슬러협회의 발족은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생활지도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직업단체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점과 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아직도 막연하고 모호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체제가 입시준비교육체제로 심화되어 감에 따라서 1960년대 후반기에는 생활지도나 상담은 교과지도의 그늘에 가리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카운슬링운동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로 1960년대부터 주요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상담심리학이 개설되고 상담이 점차 학교 이외의 분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 중반에 잠시 침체되었던 상담운동 즉, 중고등학교 상담무용론, 카운슬링 불필요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상담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전의 상담이론과 기법의 모호성, 실습과 감독의 부족에서 벗어나 1970년대부터는 상담이론이 체계적으로 소개됨으로서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수성훈련, t-group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후 대학에서는 상담전공 석사과정을 개설(이화여자대학교, 1972년; 서울대학교, 1975년)하여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즈음에 한국심리학회 내에 임상심리분과가 창립되어 임상심리분야와 더불어 상담심리전문가자격시험과

실습수련과정을 시작(이성진, 1973)하게 된 것도 한국 상담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상담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행정적인 지원은 교도부가 1973년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부서로 신설되었고, 이로써 학교 교육활동에서 상담이 전문적인 활동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도교사의 상담의 전문직 확립을 위한 의욕을 고무시킬 수가 있었다. 결국 1979년에 ‘한국 카운슬러 윤리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매년 연차대회를 개최하여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이형득, 1992). 한국카운슬러협회의 연차 대회에서 교도교사의 상담교사양성교육을 수립할 것 등을 문교부에 건의한 사실은 학교의 전문적 상담활동의 정착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정인석, 1991). 그러나 각 학교의 책임자나 교육부 당국은 여전히 가이던스 및 상담에 대한 교육적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1985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상담자원봉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상담실에서 상담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상담이론 및 집단상담 경험 등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친 수료자들로 하여금 학교현장에서 학생상담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198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김남순, 2001).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으로 상담에 대한 대중적인 확산에 영향을 미쳤으나, 좀 더 전문적인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증가시켰다. 1987년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로부터 상담분과가 분리되면서,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에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상담으로 발전되기 위한 기초가 마련

되었다. 더욱이 1993년에는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으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청소년상담원으로 공식출범하면서 2002년에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는 1996년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2003년에 다시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국 상담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한국상담학회가 아울러 창설됨으로 한국 상담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현재에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 종교기관, 개인상담실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국상담의 정체성

상담의 정체성은 상담의 고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counseling)이란 상담의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하는 인간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및 인간에 대한 철학이다.

Rogers(1942)는 상담에 대해서 훈련받은 상담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를 연결 짓는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명료화하고, 수용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고 발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1997)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및 체계적 개입전략을 통해 정신건강, 심리학, 인간발달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신병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녕감, 개인성장, 경력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1999)에서는 상담은 개인 및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정서문제, 사회성문제, 직업문제, 교육문제, 건강관련문제, 발달문제, 조직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둔다. 즉, 상담은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부적응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또한 전문적으로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 진단,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시대상황에 맞는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정원식(1978)과 이장호(1982)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임을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형득(1996)은 상담에 대해서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며 상담의 기능은 개개 인간이 최대한 발달과 복지를 이룩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상담의 정체성을 기술하고 있고, 박성수(1998)는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를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심리적인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원조하여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심리적인 조력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상담은 개인의 복지와 잠재력 개발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치료적 역할 및 예방적 역할로의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사회구조, 전문성, 문화적인 변화들을 수용하게 되고 여러 변화들이 계속되었다(Munley et al., 2004). 즉, 21세기 상담심리학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적다양성에 따라 여러 상담기법에 대한 효과성에 검증과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전략의 개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D'Andrea & Daniels, 1997). 이에 Heppner 등(2000)은 상담심리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고려하고, 다문화주의나 문화적인 다양성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차 상담영역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의 다양성은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상담의 정체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만 존재하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 등이 포함되며, 그것은 곧 한국적인 상담의 특수성과 동일한 차원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실증연구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52명을 대상으로 한국 상담의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과 상담자의 필요한 직무능력에 대한 요구도 및 상담에 대한 직무 특성을 분석하였다.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경험에 따라 상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집 대상자들을 전문상

표 1. 본 연구 표집 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상담자 (N=46) 명수(%)	상담무경험일반인 (N=194) 명수(%)	상담유경험일반인 (N=112) 명수(%)	전체 (N=352) 명수(%)
나이M(SD)		35.07(9.02)	24.59(6.62)	25.38(7.78)	26.21(8.10)
성별	남	11(23.9)	59(30.4)	24(21.4)	94(26.7)
	여	35(76.1)	135(69.6)	88(87.6)	258(73.3)
거주지	대도시	41(89.1)	84(43.3)	54(48.2)	179(50.9)
	중소도시	5(10.9)	91(46.9)	47(42.0)	143(40.6)
	읍·면	0	19(9.8)	11(9.8)	30(8.5)
학력	고졸 및 이하	0	11(5.7)	17(15.1)	28(12.57)
	대졸	6(13.0)	176(90.7)	88(78.6)	270(76.7)
	석사졸	18(39.1)	6(3.1)	5(4.5)	29(8.2)
	박사졸	22(47.9)	1 (. 5)	2(1.8)	25(7.1)
상담자격증	1급	20(43.5)			
	2급	26(56.5)			
상담받은 계기	상담자권유			18(16.1)	
	친구소개			14(12.5)	
	부모교사권유			19(17.0)	
	인터넷정보			6(5.4)	
	기타			55(48.1)	

담자, 상담 무경험 일반인, 상담 경험 일반인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은 본 연구를
위해 표집 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다.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고, 그중 상담자는 46명(13.1%), 상담 무경험자
194명(55.1%), 상담 유경험자 112명(31.8%)이었
다. 상담자들은 87%가 석·박사의 학력을 가
지고 있었고, 1급은 20명(43.5%), 2급은 26명
(56.5%)이었다. 상담 유경험자인 일반인들은
상담을 받게 된 계기가 부모 및 교사 권유 19

명(17.0%), 상담자권유 18명(16.1%), 친구소개
14(12.5%)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55명
(48.1%)로 가장 많았다. 기타에는 주로 ‘본인이
필요해서’, ‘상담 전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 ‘광고를 보고’ 등이었다.

표 2는 한국의 상담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
부적인 각 요인의 필요성 정도를 4점 척도로
설문하여 빈도분석 한 결과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전문가적 정체성,
학문적 정체성, 상담조직에서의 정체성 순으
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전

표 2. 한국 상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각 항목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상담자 (N=46) 명수(%)	상담무경험일반인 (N=194) 명수(%)	상담유경험일반인 (N=112) 명수(%)	전체 (N=352) 명수(%)
전문가적 정체성	1	0	19(9.8)	13(11.6)	32(9.1)
	2	46(100)	175(90.2)	99(88.4)	320(90.9)
학문적 정체성	1	0	21(10.8)	14(12.5)	35(9.9)
	2	46(100)	173(89.2)	98(87.5)	317(90.1)
한국적 상담모형개발	1	3(6.5)	43(22.2)	15(13.4)	61(17.3)
	2	43(93.5)	151(77.8)	97(86.6)	291(82.7)
상담조직의 정체성	1	2(4.3)	23(11.9)	12(10.7)	37(10.5)
	2	44(95.7)	171(88.1)	100(89.3)	315(89.5)
자격증 공인화	1	4(8.7)	43(22.2)	13(11.6)	60(17.0)
	2	42(91.3)	151(77.8)	99(88.4)	292(83.0)

* 단, 1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다를 의미함.

체에서도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 상담의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학문으로서 상담의 정체성, 한국 상담관련 조직의 상담에 대한 정체성, 한국적인 상담모형의 정착 등으로 나누고,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한국 상담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담자의 전문성이다.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와는 다르게 전문직으로서의 상담자들은 인간을 발달적, 교육적인 존재로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Ivey & Von Hesteren, 1990; Steenbarger, 1990). 상담자의 전

문직 정체성과 전문 업무에 관한 논의는 미국 심리학회(APA)안에 17분과에 상담심리(Counseling Psychology)가 만들어 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담심리학자들은 내담자에게 초점을 두며, 다른 학문의 하위영역으로 두지 않고, 상담이론의 기초 하에 상담실습을 하며, 성격의 재구조화 대신 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또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대신 불안을 다루게 되었고, 사회성 및 교육적-직업적인 장면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한다. 즉, 상담에서는 정신병리를 다루기 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을 다루게 된 것이다(Tyler, Tiedeman, & Wrenn, 1980).

상담자의 전문가적 정체성에 관한 국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상담자의 전문가적 정체성 (김계현, 1999; 김혜숙, 1996; 명대정, 2002; 문

수정, 1999; 심홍섭, 1998;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이규미, 2000; 최윤경, 2003; 최윤미, 2003),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김진숙, 2002;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 1993; 신현숙, 김현주, 권혜수, 손재환, 구본용, 2001; 이해성, 2002), 학교상담교사의 전문성(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 김동일, 신을진, 안현의, 2005; 박경애, 양미진, 김혜영, 1999;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이상민, 안성희, 2003; 이종현, 2005; 진혜영, 2007; 황순길, 류진아, 장진이, 정재우, 유형근, 2005),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김희연, 2006)에 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각 상담분야의 독자성과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달리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상담자의 전문가적 정체성이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담의 전문성은 상담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담교육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계현, 1997; 문수정, 김계현, 2000; 명대정, 2002; 박성수, 1997; 이숙영, 김창대, 2002; 이재창, 1996; 이형득, 1993b, 1994; 최해림, 김영혜, 2006).

현대의 상담자들은 정신건강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병원, 사설상담소, 자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관련된 직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담자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결과, 한국 상담자들의 주요 직무는 상담이나 치료, 상담 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 및 평가, 기업체 자문 및 교육 및 상담자 교육 훈련 등과 같은 5개 영역으로 밝혔다(최윤미, 2003). 그리고 최윤경(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상담 전문업무는 상담연구, 상담행정, 중·장기 성인상담, 교육·훈련·자문, 단기문제해결상담,

기관상담, 진로 및 학업상담, 사례관리 및 겸사활동 등 8개 영역으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에게는 상담능력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특성상 요구되는 경영능력, 대인관계 능력, 행정·사무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

표 3은 본 연구의 표집 대상자(표 1 참조)들에게 상담자에게 필요한 각 업무능력에 대해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상담자들은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상담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 상담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인관계 기술습득, 의사소통 기술 향상, 문제해결 능력 등에 관한 교육과정 및 훈련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Orlinsky(1989)에 의하면 일반인은 상담자에 대해 의학적인 치료자, 교육자, 교정에 종사하는 사람, 정신적, 영적 치료자 등으로 지각한다고 한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자(표 1 참조)들에게 상담자들의 직업적인 직무 특성에 대해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 경험을 가진 일반인은 상담에 대한 직무 특성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전문직과 치료직에 대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상담자들은 상담이 전문직, 교육직, 연구직, 치료직에 대해서 모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따라서 전문상담자와 일반인은 상담자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일반인도

표 3. 상담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빈도분석

		상담자 (N=46) 명수(%)	상담무경험일반인 (N=194) 명수(%)	상담유경험일반인 (N=112) 명수(%)	전체 (N=352) 명수(%)
대인관계	1	0	20(10.3)	6(5.4)	26(7.4)
	2	46(100)	174(89.7)	106(94.6)	326(92.6)
의사소통	1	0	4(2.1)	2(1.8)	6(1.7)
	2	46(100)	190(97.9)	110(98.2)	346(98.3)
문제해결	1	2(4.3)	8 (4.1)	11(9.8)	21(6.0)
	2	44(95.7)	186(95.9)	101(90.2)	331(94.0)
사고능력	1	13(28.3)	44(22.7)	35(31.3)	92(26.1)
	2	33(71.7)	150(77.3)	77(68.8)	260(73.9)
자기관리	1	3(6.5)	26(13.4)	19(17.0)	48(13.6)
	2	43(93.5)	168(86.6)	93(83.0)	304(86.4)
정보수집	1	7(15.2)	13(6.7)	14(12.5)	34(9.7)
	2	39(84.8)	181(93.3)	98(87.5)	318(90.3)
판단능력	1	9(19.6)	29(14.9)	20(17.9)	58(16.5)
	2	37(80.4)	165(85.1)	92(82.1)	294(83.5)
유머능력	1	9(19.6)	49(25.3)	29(25.9)	87(24.7)
	2	37(80.4)	145(74.7)	83(74.1)	265(75.3)

* 단, 1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다'를 의미함.

상담 경험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 전체에서 상담의 직업적인 특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대답한 것은 전문직이었고, 상담자들에 대한 봉사직, 지도직, 관리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사)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전문가들의 직업분포도인 표 5를 보면 대학과 관련된 기관이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고, 사설상담기관이 17.9%, 국가관련 기관이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에 10.1%가 근무를 하고 있었

다. 즉, 상담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전문적인 치료능력 및 연구능력 이외에 다양한 능력으로 상담실 운영, 관리 및 각종 행정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특성상 봉사직, 지도직, 관리직의 직무 역할도 요구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담자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 훈련 또는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상담자들은 대학과 관련된 상담기관에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구의 경우에 상담자의 발달

표 4. 상담자에 대한 직무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상담자 (N=46) 명수(%)	상담무경험일반인 (N=194) 명수(%)	상담유경험일반인 (N=112) 명수(%)	전체 (N=352) 명수(%)
봉사직	1	25(54.3)	105(54.1)	66(58.9)	196(55.7)
	2	21(45.7)	89(45.9)	46(41.1)	156(44.3)
전문직	1	0	8(4.1)	6(5.4)	14(4.0)
	2	46(100)	186(95.9)	106(94.6)	338(96.0)
교육직	1	3(6.5)	71(36.6)	26(23.2)	100(28.4)
	2	43(93.5)	123(63.4)	86(76.8)	252(71.6)
치료직	1	4(8.7)	10(5.2)	13(11.6)	27(7.7)
	2	42(91.3)	184(94.8)	99(88.4)	325(92.3)
연구직	1	3(6.5)	23(11.9)	13(11.6)	39(11.1)
	2	43(93.5)	171(88.1)	99(88.4)	313(88.9)
지도직	1	17(37.0)	92(47.4)	44(39.3)	153(43.5)
	2	29(63.0)	102(52.6)	68(60.7)	199(56.5)
관리직	1	22(47.8)	85(43.8)	44(39.3)	151(42.9)
	2	24(52.2)	109(56.2)	68(60.7)	201(57.1)

* 단, 1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다를 의미함.

표 5. 상담심리전문가 직업분포에 대한 빈도분석 (N=526)

직업	명수(%)
대학	321(61.0)
초·중·고	10(1.9)
사설상담기관	94(17.9)
국가기관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실	53(10.1)
병원	14(2.7)
기업	10(1.9)
복지관	5(1.0)
종교기관	9(1.7)
군 관련 기관	2(.4)
기타	8(1.5)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8년 수련수첩기준

을 심리내적인 특성변화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수행능력과 교육능력을 요구(문수정, 1999; 심홍섭, 1998)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수적인데, 전문상담교육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미흡(김계현, 1997; 이재창, 1994)한 것은 여전하고, 전문상담자 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게 현실(최해림, 1999)이며, 상담자간의 전문성에도 많은 차이(이숙영, 김창대, 2002)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담자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전문가의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정책은 매우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상담관련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의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에 대비한 전문적인 상담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여전히 미비하고,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6에 국내 4년제 63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과내 상담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학 관련 교육상담전공자들에 비해 심리학과내 상담관련 대학원과정에서는 상담관련 과목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교과과정의 비중이 큰 학교가 많았고, 교육학 배경의 상담 대학원에서는 상담에 대한 교과 과정에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국내 상담자들 간의 전문가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해림과 김영혜(2006)가 35명의 심리학과와 교육학과의 석사학위 상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상담전공 4개, 상담관련과목 3개, 연구방법론 2개, 실습훈련과목을 1개 정도를 이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의 상담 역사를 보면 상담전문가의 전문성을 위한 훈련모델로서, 과학자-실천가모형(scientist-practitioner model)과 과학자-전문가모형(scientist-professional model)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과학자-실천가 모형은 과학과 실습을 통합하여 상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설계를 근거로 한 연구능력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상담자의 발달적 측면을 강조한다(Myers, 2007). 반면에 과학자-전문가 모형은 상담이론과 연구와 실습을 통합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주의 깊게 상담의 적용 및 상담적용의 효과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Gelso & Fretz, 1992; Murdock, Alcorn, Heesacker, & Stoltenberg, 1998).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어느 모형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 두 모형이 대안적으로 통합 운영 될 필요성을 제기(Korman, 1974)하고 있기는 하나,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위해 과학자-실천가 모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Meara, Schmidt, Carrington, Davis, Dixon, Fretz, Myers, Ridley, & Suinn, 1988; Murdock *et al.*, 1998). 이는 상담이 넓은 의미로 과학자의 영역으로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Gelso & Fretz, 2001), 상담자들의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인 틀로서 과학적 연구의 논리성, 인과성, 경험적 검증가능성, 효용성 등의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특성은 사례연구나 질적연구 방법 등에 적용함으로써 상담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상담자들의 윤리성, 상담자들의 상

표 6. 63개 대학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교육과정에 대한 빈도분석

범주	과목명	15개 대학심리학과	48개 대학 교육학 관련
		학교 수(%)	학교 수(%)
상담전공	상담심리이론	15(100)	43(89.6)
	정신역동(또는 정신분석)	8(53.3)	9(18.8)
	행동치료	3(20.0)	35(72.9)
	상담세미나	11(73.3)	12(25.0)
	가족치료	13(86.7)	38(79.2)
	심리치료이론	14(93.3)	11(22.9)
	집단상담	11(73.3)	40(83.3)
	아동관련	11(73.3)	36(75.0)
	진로상담	3(20.0)	38(79.2)
	청소년 관련	6(40.0)	39(81.3)
	특수교육 관련 (영재아, 학습부진아 등)	2(13.3)	35(72.9)
	생활지도	0(0.0)	28(58.3)
상담관련	성격심리학	15(100)	39(81.3)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15(100)	43(89.6)
	정신병리(또는 이상심리)	15(100)	36(75.0)
	학습심리학	2(13.3)	32(66.7)
	발달이론	5(33.3)	18(37.5)
	건강심리	8(53.3)	2(4.2)
	인지이론	12(80.0)	10(20.8)
연구방법론	심리통계(또는 교육통계)	14(93.3)	22(45.8)
	상담연구 방법론	12(80.0)	27(6.3)
	실험설계	7(46.7)	3(6.3)
실습훈련	상담실습	12(80.0)	35(72.9)
	상담사례연구	11(73.3)	35(72.9)

* 기타과목으로 각 치료기법(예, 게슈탈트,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단기상담, 인본주의, 사회심리학, 노인 관련, 성관련, 약물관련, 종교관련, 다문화, 여성, 부모교육, 논문지도, 학생상담, 상담윤리, 정신건강, 스트레스, 의료관련, 문화, 상담조직관리, 상담교재연구, 심리학 일반, 교육학 일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상담관련 석사학위과정으로 홈페이지상의 표식 내용을 참조하였고, 교육학 관련은 일반대학원 7개, 교육대학원 41개 임.

*** 도표 상 범주는 최혜림과 김영혜(2006)의 연구를 따름.

담과 연구에 대한 학술윤리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담 수퍼비전과 훈련에 대한 교육과정이 아울러 강조될 필요가 있다. Skovholts와 Ronnestad(1992)에 의하면 초보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찰이라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 전문가들은 상담실습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기술 습득과 상담 수행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서 상담전문성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담의 학문적인 정체성

국내 학문적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경찰교육학(김상호, 2003; 이상원, 이승철 2007; 이연태, 2002), 교육공학(김희배, 2006; 정재삼, 금혜진, 2003), 기독교(목회)상담학(반신환, 2002; 류혜옥, 2007; 양유성, 2001; 이상억, 2007; 최재락, 2004), 기독교교육학(고용수, 2002; 김성은, 2005), 비서학(심재권, 2005; 이영희, 1994), 지역학(김경수, 2006; 김웅진, 김지희, 2002; 이규태, 2007; 전성흥, 2002), 태권도학(이봉, 2005), 특수교육학(김병하, 2008), 도시행정학(이규환, 2007), 한국어교육학(강승혜, 2003), 국제통상학(노택환, 2003), 한자문화학(박홍수, 남종호, 200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유한 핵심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주제가 있어야 하고, 고유한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문의 개념적 경계가 분명히 할 필요(박종민, 2006)가 있다.

상담학의 학문적 성격은 부적응을 보이는 개인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 뿐 아니라 개인의 장점과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예방적,

교육적, 발달적 관점에서도 조망하여야 한다. Rogers(1980)는 상담이 심리치료 분야에서 객관적인 연구와 주관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실증적)연구가 가능 하게 되었고, 학교 교육의 방법의 변화, 여러 사회조직의 지도력의 개념 및 사회사업, 간호학, 그리고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강조 했다. 또한 과학철학, 문학, 신학, 철학 등에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역사에서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심리학회(APA)는 상담심리학을 응용분야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1953년 제 17분과의 명칭을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으로 하게 됨으로서 임상심리학 및 정신의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 상담의 역사에서 살펴본 듯이, 1971년 한국심리학회(APS)는 “임상 및 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제정하고, 1973년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전문가를 처음으로 배출하였다. 결국 1986년에 학문적인 성격을 상담심리분과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임상분과는 진단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분리하게 되었다. 즉,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와 임상심리학회로 각각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서, 상담의 학문적인 독자성을 가지려는 노력은 우리 역사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자들도 상담의 학문적인 정체성의 중요함을 강조했었는데, 특히 이형득(1994)은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상담학이 다른 학문의 연속에서 벗어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 되어야 함을 강조했었다. 또한 박성희(2001)도 상담은 상담학(Science of Counseling)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담학은 ‘사람의 변화’를 중심축에 놓고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담은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과 아울러 철학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최대한의 발달과 복지를 이룩하도록 돕기 위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능한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이해할 뿐 아니라 이들 요인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은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상담대상은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가족원,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집단과 조직체, 지역사회 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상담기법(예: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요구하며(현외성, 박용순, 박용권, 김영미, 권현수, 1993),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가족, 종교 등과 같은 것들이 개인의 삶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법학, 철학, 문화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다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담이 학문적으로 종합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해서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상담학(Science of Counseling)이 포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담은 여러 분야의 학문으로부터 형성된 독립적인 학문이다. 상담을 통합적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문적인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문에 종속되기보다,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만이 사람의 변화를 다루는 것인 아니고,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의 학문적 정체성은 상담학의 독립성과 아울러 타 학문 간의 이론 및 방법론적 상호 교류와 자극은 오히려

상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학문이 학문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역사적인 요구에 따른 학문의 가치성, 즉 실천성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고유한 과학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소광희 1994). 즉 상담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과학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과학자들의 실천으로 설립될 수 있다(Lepenies, 1988). 사회과학과 과학의 차이는 주제가 아니라 방법론(Cohen, 1994)이기 때문에 상담의 학문적인 정체성 확립에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상담조직과 정책에서 상담의 정체성

한국에서 상담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성이 인식되면서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표 5와 같이 정부기관, 학교,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사설상담기관, 기업 등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상담의 전문성의 질이 매우 다르고 상담료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며, 사설 상담기관이나 여러 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합된 기관이나 법적인 제도가 미흡하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상담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문화상담, 내담자의 다양성 문제, 동성애, 학교폭력, 중독, 자살,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최근 국내 상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정책

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가 종전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고 담당 부서의 명칭도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정책의 개념이나 핵심 요소,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핵심 기능이 ‘복지’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하나로 통합되면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실의 기능이 아동·청소년 복지센터로의 그 기능이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혼숙려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그 기능을 보장해주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다양한 학문적 배경, 즉,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종교관련 등등의 학과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쳐 각각의 상담의 정체성을 가진 상담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각 상담분야이 지속적인 상호소통으로 공통성을 확보한 통합적인 관점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상담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있다. 2006년까지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두어 학교 폭력, 진로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심리 상담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예방 및 해결(김희대, 2007)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779명에 불과하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인원이 소수이고, 이를 뒷받침해줄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그리고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자격과정은 초·중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급 정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유치원 정교사 등의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경력 없이도 이수대상자 선발에 지원이 가능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참여자 수에 비해서 임용되는 수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국내 상담관련 학회에서 취득한 상담전문가들은 임용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복잡한 자격검정과정을 거쳐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학회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담관련 주요 학회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사)한국상담학회가 있다. 이들은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상담의 전문성과, 상담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담관련 자격증을 공인화 하는 데에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할 때, 정신과 의사(psychiatry), 임

상심리학자(clinical psychologist),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정신간호사(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e) 그리고 상담심리학자(counseling psychologist) 등을 말한다(Brain, 2002; Norcross, 2000).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는 상담심리학자를 제외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공인화 된 자격증제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복지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상담의 질적인 서비스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전문가에 대한 공인화된 자격증제도 도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현재 상담과 관련된 여러 국가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상담정책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국 상담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 상담의 정체성은 더 이상 우리 상담자들만의 전문성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들의 통합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해졌다. 즉, 상담 관련 정부 소관부처, 각 지자체, 주요 정부 또는 지자체 출현 상담 관련 기관, 민간기관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 상담 조직 체제를 구성하여 학술연구나 상담의 전문성의 질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적인 상담모형의 정립

Steffler와 Mateny(1968) 그리고 Hansen 등(Hansen, Stevic, & Warner, 1977)은 바람직한 이론의 구성요소는 명백성, 포괄성, 정확성, 간결성, 후속 연구 촉진성,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 그리고 유용성 등이라고 한다. Corsini(1981)는 250여개가 넘는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소개

했으며, 최근에는 400여개가 넘는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장성숙, 2002). 즉 이것은 상담에 대한 각 접근법들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 인간 변화에 대한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간의 상담의 역사는 정신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주의와 인본주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 다문화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Guthrie, 1998). 상담이론의 이러한 다양한 발달은 내담자가 지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상담의 패러다임은 한번 등장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들이 수정 보완되면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전의 패러다임이 쓸모없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식, 2000). 인간 존재는 실로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기 때문일 것이다.

상담의 시작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이는 상담이 여러 세대를 통해 전승되어 온 철학적 관점과 연관이 되어 있고(George & Cristiani, 1981; Baruth & Robinson, 1987), 동시에 문화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Pederson, 1991).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차이와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문화라는 것은 상담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각각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ederson, 1997).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인간

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 문화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간차원을 강조하는 초문화적인 관점(transcultural)도 있다(Fukuyama, 1995; Pedersen, 1997). 이것은 문화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므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보편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관점 모두는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며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한국적인 상담모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문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이해를 도우며,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상담자들을 인지하도록 돕고, 또한 치료를 이용하고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orenzayan 등(2001)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최근 동·서양의 사고방식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동양과 이에 반해 부분을 분석해서 보려는 서양, 그리고 개인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동양과 정서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서양, 동양의 도와 서양의 삼단논법,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동양과 서양의 개인주의, 동양의 상황론과 서양의 본성론, 경험을 중시하는 동양과 논리를 중시하는 서양 등으로 두 문화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Norenzayan, Choi, & Nisbett, 2001). 결국 이러한 차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범주의 문화적 배경을 다룰 수 있으며 이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몇몇의 상담이론으로 다양한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해 내기가 어려운 것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서 설명 될 수 있다. 특히 적응문제나 정상성 혹은 정신건강이나

질병과 같은 문제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가 그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임효덕, 1997).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면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적응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분법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나 내담자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문화는 상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는 인간 삶의 패턴(pattern)이고 생활방식(lifestyle) 이고 의사소통의 매체이고 인간존재의 의미이다(김해연, 2000).

한국문화에 기초하여 한국적상담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 각각의 상담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상담모형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설픈 통합모형으로 접근하다보면 하나의 이론을 잘 정립 한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학적인 연구와 상호 보완에 의한 순환적인 과정에서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차츰 정립될 수 있리라 보고 있다. 최정훈(1994)은 동·서양의 인간관의 차이,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철학의 차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과 정(情)을 다루는 한국, 기(氣)를 중시하는 한국과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과 자기개방의 동·서양의 차이 때문에 한국 상담의 토착화를 일찍이 강조했다.

주요 선행 연구자들의 한국적 상담모형을 살펴보면 이동식(1986)의 도교적 상담이론, 한덕용(2001)의 유교적 상담이론, 이죽내(1994)와 권석만(2000), 윤호균(1983) 그리고 방기연(2000)의 불교적 상담이론이 있다. 또한 불교,

도교의 영향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살피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 이형득(1993a)의 본성실현 상담이론, 선진유가(先進儒家)의 경사상(敬思想)을 발전시켜서 성리학과의 교학사상을 원류를 두고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자녀교육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인 상담모형으로 발전시킨 장성숙(1999)의 현실역동상담 모형이 있다.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한국적 상담모형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삶의 원리에 종교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문화가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해연, 2000)일 것이다. 즉, 유교사상으로부터 욕심과 욕구를 제거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양과 실천 방법을 통해 개인적 덕목 함양과 수양 및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불교사상은 사상적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분열과 갈등 극복, 집단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도교사상은 현대의 환경 문제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물욕을 배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삶의 건강성 회복에 도움을 준다.

앞서 제시한 표 3을 보면, 한국 상담자들은 상담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상담자 모두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상담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정보수집능력 순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상담을 경험한 일반인들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 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에서 상담자와 일반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이었고, 상담자나 상담 경험이 있는 내담자들은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 상담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박영신, 김의철, 1997) 때문에 한국적 상담모형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상담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담자에게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상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에 대한 연구(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에서도 한국적인 가족주의적 특성과 함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상담효과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요인은 서구상담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결국 한국적 상담모형의 기본은 관계를 중시한 인본주의적 관점(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2007)으로서 인간 존엄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경제적 근대화로 인해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은 한국의 지배적인 사회조직의 형태(최봉영, 1997)로 남아있다. 즉, 모든 사회단위에서의 인간관계가 가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이 기본적인 사회조직임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와 문화편향은 계층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상담에서 촉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충분한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 공감능력(윤호균, 2007)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기술(Egan,

1998)로서, 공감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양식이다(Kohut, 1982). 따라서 관계지향적인 집단주의 성향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서적 특징을 감안하면 한국 상담에서는 종교적인 가르침과 인간중심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공감적인 상담 촉진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질서나 규범을 지키도록 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게 함으로서 욕심이나 욕망의 절제를 지향하는 삶이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현재 첨단 기술사회, 고도의 정보사회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물질적 삶의 풍요만큼이나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는 불투명 혹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의 조화를 이룬 건강한 인간, 성숙한 인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이러한 사회 환경은 그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경제적인 번영과 급격한 도시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여성, 다원화(pluralism), 문화적 차별화와 같은 요소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상담의 정체성의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앞으로의 한국 상담학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담자의 직업적인 특성에 대해서 상담자나 일반인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이었다. 따라서 상담자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은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앞으로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는 과학자-실천가모형(scientist-practitioner model)이나 과학자-전문가모형(scientist-professional model)의 적절한 조화를 가지고 어느 한 모형을 지향함으로써 내담자 문제에 대하여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상호관련성만을 파악하게 하는 특정한 상담이론이나 기법에 함몰되기 보다는 다차원적 이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마다 독특한 상황에 맞는 모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자들에게는 상담능력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수퍼비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상담전문성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한국적 상담전문가 훈련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의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상담의 학문적인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 상담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담의 전문가적 정체성과 한국적인 상담모형의 정립과 함께 관련지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독자적인 한국적 상담을 강조하다 보면, 상담학의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무시한 채 관념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상담학은 과학적인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하고, 한국 상담학이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학문적인 정체성도 함께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점차 상담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한국적인 상담모형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상담관련 조직과 국가정책에서 한국적 상담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한국의 다양한 상담관련 조직의 문화는 상담조직에서 인식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방법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상담조직문화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상담조직의 신념은 그 조직의 핵심적인 목표, 기준, 전략 및 방법들을 정하려고 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상담관련 정책은 한국 상담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동, 청소년 상담의 통합과 아울러 상담이 아동·청소년복지개념으로의 전환,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유명무실, 여러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각각의 상담 전문가의 양산과 아울러 학교나 학회로 부터 다양한 교과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전문성은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상담은 정부조직과 지자체, 대학, 상담기관과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결망을 구성하여 상담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적인 상담전문기관을 세우고 상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상담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조직이 구성 될 필요가 있다.

넷째, 그간 한국의 상담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상담의 한국적인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다. 한국 상담은 서구, 특히 미국의 상담이론과 연구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따라서 서구에서 발전한 상담이론의 보편성과

역사성이 한국적인 상담모형에도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상담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 이론과는 다른 과학적 연구방법들이 우리 사회구조에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할 때만이 우리만의 고유한 상담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상담에 대한 정체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한국적인 상담모형에서는 한국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적인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상담모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상담에서 지향하는 상담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고 사랑하며,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게 함으로서 욕심이나 욕망의 절제를 지향하는 인간관을 강조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 상담의 토착화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서구의 상담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그 이론을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에 맞게 수정 또는 재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사상체계, 즉, 종교, 문화, 철학 등에서 상담이론의 기본적인 인간관을 정립하고 이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한국 상담의 고유성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은 상담자들로 하여금 과학성, 도덕성, 전문성과 아울러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적인 직업적 소명의식과 함께 높은 윤리의식, 이타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며, 그런 이후에야 전문가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해야하며, 학제 간 혹은 학문 간의 통합 교육, 연구 프로그램 적극 육성하고 각 전공의 독특성을 유지하며 학문의 전체적인 발전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문 간의 연계로서, 상담과 사회복지, 의료사업, 교육,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상담학은 간학문적, 사회과학적, 종합학문적인 접근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승혜 (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1-27.
-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 (2005). 중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3(2), 61-74.
- 강홍식 (2005). 울곡의 『격몽요결』에서 나타난 호 교육사상 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용수 (2002).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황과 방향. *기독교교육 논총*, 8, 11-41.
- 공석영 (1973). *생활지도 상담론*. 서울: 학문사.
- 권석만 (2000). 불교와 한국 심리학 연구. *한국 의학술연구: 인문·사회과학편*, 1, 141-148.
- 김경수 (2006). 지역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5-25.
- 김계현 (1994). 바람직한 전문상담의 모형. *대 학생활연구*, 12, 109-124.
- 김계현 (1995, 1997). *상담심리학: 적용영역별 접근*. 서울: 학지사.
- 김계현 (1999). 상담심리학 연구의 부진 원인과 극복 방안.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3(1), 1-8.
- 김남순 (2001). *상담 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동일, 신을진, 안현의 (2005).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시행과 개선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3(1), 165-182.
- 김병하 (2008). 한국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03-323.
- 김상호 (2003). 경찰학의 정체성 및 학문적 성격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4, 167-194.
- 김성은 (2005). 전쟁과 평화와 기독교교육의 정체성 고찰: '9·11테러'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과제들에 대한 숙고. *기독교교육 논총*, 11, 133-156.
- 김용진, 김지희 (2002). 지역연구전략의 경험과 학적 재구성: 선택전략·소거전략·확산추적전략. *21세기정치학회보*, 12(2), 247-264.
- 김진숙 (2002). 청소년상담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적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63-886.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5.
- 김혜숙 (1996). 상담의 최근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 *교육심리연구*, 10(1), 167-183.
- 김희대 (2007).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 서울: 서현사.
- 김희배 (2006). 교육정보미디어학회와 교육공학회의 학문적 정체성 탐구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4), 5-28.
- 김희연 (2006). 직업상담원의 직무만족과 전문직

- 업적 정체성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연 (2000). 한국문화와 기독교. 성지출판사.
- 노덕환 (2003). 국제통상학의 학문적 범위와 교육체계. 사회과학연구, 22(2), 141-183.
- 류혜옥 (2007).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사회적 과제. 신앙과 학문, 12(2), 27-44.
- 명대정 (2002).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주요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례분석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정, 김계현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박경애, 양미진, 김혜영 (1999). 학교상담실태 및 모형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74,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성수 (1993). 한국 상담의 과제와 발전방향. 유기섭 박사 정년기념논총: 교육심리학의 탐구, 731-738.
- 박성수 (1997). 21세기 청소년 상담모형 방향. 청소년상담연구, 5(1), 7-38.
- 박성수 (1998). 21세기 청소년상담의 방향,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활성화방안.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성수, 박재황, 황순길, 오익수 (1993). 청소년 상담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상담연구 93-2.
- 박성희 (2001). 상담과 상담학. 서울: 형설출판사.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중·고 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 (1993). 청소년 상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3.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종민 (2006). 한국 행정학 50년: 행정이론을 위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
- 박홍수, 남중호 (2003). 한자 문화학의 정체성. 중국연구, 31, 289-300.
- 반신환 (2002). 현대 기독교 상담에 나타나는 기독교 정체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425-448.
- 방기연 (2000). 불교상담. 서울: 조계종 출판사.
- 소광희 (1994). 현대의 학문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울: 민음사.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31-336.
- 신현숙, 김현주, 권해수, 손재환, 구분용 (2001). 청소년 지역상담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2.
- 심재권 (2005). 비서학의 학문적 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시론: 중국 비서학 교육과 연구. 지성과 창조, 8, 343-363.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 수준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우성 (2001). 기독교 상담학의 정체성과 기능적 과제연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5, 277-298.
- 윤호균 (1983). 삶·상담·상담자: 심리 상담에 대한 동양적인 접근. 서울: 문음사.
- 윤호균 (2007). 온마음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05-522.

- 이규미 (2000). 서울시청소년상담체계의 성과와 과제. 서울청소년상담연구, 2(1), 11-23.
- 이규태 (2007). 한국의 “지방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학연구, 28, 177-209.
- 이규환 (2007). 도시행정론에 관한 소고: 학문의 정체성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197-216.
- 이동식(1986). 상담의 동양적인 접근. 상담의 이론과 실제(한국 대학카운슬러 협회). 중앙적성출판사.
- 이봉 (2005). 태권도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 안성희 (2003). 학교상담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4(2), 281-293.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상원, 이승철 (2007).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3), 197-228.
- 이상억 (2007). 치유에 대한 분석적-비평적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상담의 정체성 연구. 장신논단, 30, 311-348.
- 이성진 (1973). 한국교육학연구사. 서울: 한국교육학회.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이연태 (2002). 경·학(경찰관련학과) 교류·협력을 통한 치안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식 (2000).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해와 목회상담.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1994). 한국 비서학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상 (1992). 상담심리학. 서울: 성광문화사.
- 이재창 (1994). 학교 심리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문집, 11, 122-155.
- 이재창 (1996).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26.
- 이장호 (1982, 2000). 상담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 이종현 (2005). 학교상담교사의 직무 및 역할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죽내 (1994). 분석심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 원광정신의학, 38, 127-169.
-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형득 (1993a). 본성 실현 상담의 이론적 배경. 발달 상담 연구, 1, 27-59.
- 이형득 (1993b). 한국 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 상담과 지도, 28, 9-22.
- 이형득 (1994). 전문적 상담과 발전 과제: 상담, 이대로 좋은가?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7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 이형득 (1996). 상담의 이론적 접근. 서울: 형설출판사.
- 이혜성 (2002). 청소년 성을 살려내는 청소년 상담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 37, 1-12.
- 임효덕 (1997). 신체화 증상의 동서양 이해의 차이. 정신치료, 11(1), 94-103.
-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상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4(3), 547- 561.
- 전선홍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8(2), 20, 29-53.
- 정인석 (1991). 상담심리학의 기초이론. 서울: 대왕사.
- 정원식 (1978, 1982).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도서.
- 정재삼, 금혜진 (2003).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논쟁: 학문적 정체성, 간학문성, 소프트 및 하드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과학연구, 34(2), 167-192.
- 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2007).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 모색: 인본주의 상담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69-586.
- 진해영 (2007). 중등학교 학생들의 상담인식에 기초한 학교상담 활성화 방안: 전문상담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세계절.
- 최윤경 (2003).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최윤미 (2003). 한국 상담 전문가의 역할과 직무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 최재락 (2004). 목회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30, 461- 487.
- 최정훈 (1994). 상담의 토착화. 대학상담연구, 5, 1-4.
- 최해림 (1999).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의 현재. 대학생활동연구, 17, 1-18.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카운슬러협회 (1985). 변천하는 사회 성장하는 청소년: 한국 카운슬러협회 20년사. 한국카운슬러협회, 서울: 정민사.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 (2), 449-470.
- 현외성, 박용순, 박용권, 김영미, 권현수 (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 유풍출판사.
- 황순길, 류지아, 장진이, 정재우, 유형근 (2005). 학교청소년상담사 학교상담 활동모형 연구. 청소년 연구 114,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응연 (1994). 교육-생활지도과 인간교육. 상담과 지도, 29, 24-59.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7). *Solution focused counsel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ACA.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9). *APA Commission for the Recognition of Specialties and Proficienci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Specialties and proficienci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Retrieved January 4, 2007 from <http://www.apa.org/crsppp/rsp.html>.
- Baruth, L., & Robinson, E. (1987). *An introduction to the counseling profess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ain, C. (2002). *Advanced psychology: applications, issues and perspectives*. Cheltenham: Nelson Thornes.
- Cheatham, H., Ivey, A. E., Bradford, Ivey, M., Pederson, P., Rigazio-DiGilio, S., Simek-Morgan, L., & Sue, D. W. (1997).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I: Metatheory-taking theory into practice. In A. E. Ivey, M. Bradford, Ivey, & L. Simek-Morgan(Ed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th ed.). pp.133-169. Boston: Allyn & Bacon.
- Cohen, A. (1994). *Self Consciousness: An Alternative Anthropology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Corsini, R. J. (1981). *Handbook of innovative psychotherapies*. New York: Wiley.
- D'Andrea, M., & Daniels, J. (1997). Multicultural group counseling. In S. T. Gladding(Ed.), *Group counseling: Issues and challenges*(pp. 105-110). Greensboro, NC: ERIC-CASS.
- Egan, G. (1998).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pproach to helping*(6th ed.). Brooks/Cole Publishing, Pacific Grove.
- Fukuyama, F. (1995). The Primacy of Culture. *Journal of Democracy*, 6(1), 7-14.
- Gelso, C. J., & Fretz, B. R. (1992). *Counseling Psychology*.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Gelso, C. J., & Fretz, B. R. (2001). *Counseling Psychology*(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George, R. L., & Chritiani, T. S. (1981). Theory, methods, and processes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이장호, 이재창 역(1985). 상담과 심리치료, 이론, 방법, 과정. 교육과학사.
- Guthrie, R. (1998). *Even the rat was white: A historical view of psychology*. Allyn & Bacon.
- Hansen, J. C., Stevic, R. R., & Warner, R. W. Jr. (1977).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Inc.
- Heppner, P. P., Casas, M. J., Carter, J., & Stone, G. L. (2000). The matur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multifaceted perspectives, 1978 - 1998.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rd ed, pp.3 - 49). New York: John Wiley.
- Ivey, A. E., & Van Hesteren, F. (1990). Counseling and development: No one can do it all, but it all needs to be don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34-36.
- Kohut, H. (1982). Introspection, Empathy, and the Semi-Circle of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3, 395-407.
- Korman, M. (1974). National conference on levels and patterns of professional training in psychology: Major themes. *American Psychologist*, 29, 441-449.
- Lepenes, W. (1988). *Between literature and science: The rise of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ara, N. M., Schmidt, L. D., Carrington, C. H., Davis, K. L., Dixon, D. N., Fretz, B. R., Myers, R. A., Ridley, C. R., & Suinn, R. M. (1988). Training and accredita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366-384
- Munley, P. H., Duncan, L. E., McDonnell, K. A., & Sauer, E. M. (2004). Counseling

- psycholog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7, 247-271.
- Murdock, N. L., Alcorn, J., Heesacker, M., & Stoltenberg, C. (1998). Model training program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 658-672.
- Myers, D. (2007). Implic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in Counseling Psychology Training and Practi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6), 789-796
- Norcross, J. (2000). Clinical versus counseling psychology: What's the diff? *Eye on Psi Chi*, 5(1), 20-22.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 (2001). *Eastern and Western folk. psycholog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 Orlinsky, D. E. (1989). Researchers' images of psychotherapy: Their origins and influence on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13-441.
- Pederson, P. (1991). Counsell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Counselling Psychologist*, 19, 10-58.
- Pederson, P. (1997). *Culture-centered counseling interventions: Striving for accuracy*. Newbury Park, CA: Sage.
-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Houghton Mifflin Company.
-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New York: John Wiley.
- Steenbarger, B. N. (1990). Toward a developmental understanding of the counseling specialty: Lessons from our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434-437.
- Steffler, B., & Mateny, K. (1968). *The function of counselling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 Tyler, L., Tiedeman, D., & Wrenn, C. G. (1980). The current status of counseling psychology: 1961. In J. M. Whitely(Ed.), *The history of counseling psychology*(pp.104-124). Monterey, CA: Brooks/Cole.
- Wheeler, J. K. (1980).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counselling major by speci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USA.
- 원 고 접 수 일 : 2008. 8.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0. 14
게 재 결 정 일 : 2008. 11. 10

Issues for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Counseling in Korea

Ae-Sun Park

Seoul Metropolitan Counseling
& Center for Youth

Mi-Gu Hwang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ssues for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counseling in Korean society. Firstly, this paper describes that history of counseling, the identification of counseling, and issues of relevance to Korean society in terms of practical counseling research. Then, and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counseling are explained. It is argued here that there should exist a form of identific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or's and a Korean model of counseling in order to better establish a stronger sense of identification for counseling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cience of counseling should involve a combina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ounseling and research. Further development of counseling organizations, policy promoting counseling should be activated. Therefore, Korean counseling, for it to progress, will have to develop the means of raising skills needed for the solving of problems, undertaking high quality scientific research, and establishing a fruitful and ongoing dialogue with the social sciences and other related fields. Additionally, the quality of counselors depends heavily on their training, suppor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ll of which must be improved and developed further.

Key words : identification of counseling, issues of Korean counseling